

##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김 병 수<sup>†</sup>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A Study on Awareness and Experience of Extramarital relations

Byung-Su Kim<sup>†</sup>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extramarital relations across individual and familial variables of married men and women. Data for this study were 600 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recruited the respondents through internet sit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st of married men and women were regarded extramarital relations types(emotional connections, short-term relationship such as prostitution, sexual intercourse except a prostitution, one-night stands, physical connections, letter chatting with multimedia, video chatting with multimedia). By gender men had more permissiveness attitudes about extramarital relations type than women.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extramarital relations types across variables(sex, age, education level, income, occupation, religion, marriage duration). 3) Married men reported that they experience(emotional connections, sexual intercourse, physical connections, letter chatting with multimedia, video chatting with multimedia, infidelity ideation, infidelity attempts) more extramarital relations types than married wom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extramarital relations types across variables.

**Key words:** extramarital relations, awareness, experience,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결혼한 부부에게 혼외관계는 부부 상호간의 신뢰감을 손상시키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된 요인이고 이혼의 주된 사유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이혼건수는 12만 8500건으로,

이중 이혼 소송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8%로 가장 많았다(연합뉴스 2005. 10. 25).

혼외관계는 상대배우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은 물론 가족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지만 일부일처제의 부부유형의 형성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있고, 우리사회의 가족제도는 혼외성관계에 관해 이를 법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부 이외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sup>†</sup> Corresponding author, Tel : 063-270-3835, E-mail : kbs4679@hanmail.net

갖는 행위에 대해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고, 한편에서는 여성지, 각종드라마, 소설, 영화 속의 주요 소재로서 등장하면서 흥밋거리가 되고 있다. 양다진(2004)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우리의 문화가 혼외관계의 기회를 거의 무한정 제공하고 있어, 늘어가는 혼외관계의 증가율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사회의 특유의 음주문화와 왜곡된 성문화는 윤락으로 연결되고 있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음란물 사이트, 이성교제 사이트 등 사이버 혼외관계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혼외관계는 그 양상도 다양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혼외관계의 일반적인 유형인 혼외 성교만을 혼외관계로 포함시켜왔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정서적 혼외관계(Glass, Wright 1992), 사이버 혼외관계(Cyber affairs) 및 기타 다른 유형의 혼외관계에 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더불어, 몰입의 깊이로 구분할 수 있는 단기적 관계 혹은 장기적인 관계 등이 주는 상대적인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념 정의로 혼외관계의 기준을 결정짓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 Texas대학교 David Buss(1997)는 남성은 배우자의 육체적 혼외관계에 격분하고 여성은 배우자의 심리적 혼외관계를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Newsweek 262호, 전요섭 2002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혼외관계 인식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 또한 혼외관계의 유형에 있어서도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관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데, 종래의 혼외관계가 성관계만을 그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이고 남성의 혼외관계가 성관계 지향적이지만, 여성에게는 성행위 자체보다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감정적 교류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성행위만을 혼외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남성의 가치관만 수용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전요섭 2002).

한편, 이 같은 남·녀 간의 혼외관계에 관한 기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전영주(2001)는 혼외관계 연구의 어려움으로 첫째, 혼외관계에 대한 범위의 설정으로 들고 있다. 혼외관계에 관한 개념상의 복잡함이 혼외관계 연구의 어려움이 되고 있고, 둘째로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혼외관계의 남성의 경험율에서도 20.2%에서부터 73%까지 각 연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는 혼외관계라는 주제에 관한 규범 일탈성으로 인해 솔직한 응답과 많은 수의 회수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연구자들에게 있어 혼외관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가 부진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여 보았다. 또한 혼외관계에 관한 개념 정의를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혼외관계에 관한 기존 남녀들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봄으로서 혼외관계의 구체적 양상을 양적인 서베이를 통해 분석하여 혼외관계에 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목적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 혼외관계

#### 1) 개념

혼외관계라는 용어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이영숙 등 2000), '바람', '불륜', '간음(간통)', '외도'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는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다.

먼저 심영희(1991)는 사회적 개념으로 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간통을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매매춘 제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형법 24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김예숙(1995)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

(매매춘포함)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매매춘 포함 이유는, 매매춘이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과 매춘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남성으로 매춘을 제외 시켰을 때 남편의 매춘을 간접적으로 정당화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2) 유형

혼외관계의 유형은 학자마다 분류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에 기반한 유형, 정서에 기반한 유형 또는 두 가지가 결합된 유형으로 분류한다 (Glass, Wright 1992). 이러한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혼외관계 당사자에게 그 정당성을 묻고 그의 사고 유형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Frank Pittman(1989)은 임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우연한 혼외관계 - 애정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계획되지 않았던 시도이다. 혼자 있을 때, 여행중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질병과 임신등으로 배우자가 곁에 없을때 발생하는 경우로 '히룻밤의 정사'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배우자에게 신뢰가 상실되어 다시 형성되어야만 한다.

② 바람피우기 - 거의 취미처럼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다. 과잉적 남성적 행위로서 혹은 완벽한 남성을 찾기 위한 여성들의 바람기 행위이다. 바람꾼들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지만 더불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만끽한다.

③ 낭만적 혼외관계 - 사랑에 빠지는 경우이다. 현실생활의 무력함, 활기없다고 느낄때 사랑에 빠지게 된다. 매우 빈번히 낭만적 혼외관계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양한 성을 즐기기 위해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④ 부부간 함의 -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공공연히 혹은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일부 조건을 계속유지하는 반면, 관계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방법이다.

한편 최근들어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혼외관계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 혼외관계가 있는데,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자기표현 공간이 되고 있고,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환경조건에 따라 행동 규제를 덜 느껴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던 인터넷 채팅이 성적으로 숨김없이 대담해지고 있어 가정파탄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정서적 혼외관계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Glass와

Wright(1992)는 성교만을 외도의 기준으로 한 것은 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적인 편견을 반영하고, 정서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여성의 혼외관계의 실상을 잘 드러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예숙(1995)과 남은주(1998)또한 '배우자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이성(매매춘 포함)과 육체적 관계 및 정서적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여 비록 성적인 결합은 없지만 그것이 부부관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간의 신뢰감에 손상을 주는 경우를 혼외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혼외관계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외관계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행위로서 그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위협이 되고, 그 유형은 정서적인 것, 성적인 것, 정서적인 것과 성적인 교류가 연합된 것 모두를 혼외관계의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 2. 혼외관계의 관련변인 및 선행연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혼외관계

성별은 다른 변인 즉 연령 및 다른 개인적인 특성, 혼외관계의 유형과 같은 변인과 상호작용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남성들이 혼외성관계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심영희(1991)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혼외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Atkin, Baucom 과 Jacobson(2001)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혼외성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수준이하의 사람들보다 대졸이상의 사람들이 혼외성 경험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은 더욱 뚜렷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Chien Liu 2000). 그러나 양다진(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외관계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2006)의 연구에서 도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의 경우 혼외관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졸, 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혼외 성관계의 경우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Atkin 등 2001) 연구자들은 소득 그 자체보다 오히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성적으로 접할 기회 등이 오히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몇몇 연구는 연령과 혼외관계 사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kin 등(2001)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40-45

세, 남성은 55-65세에 혼외성관계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ederman(1997)의 연구에서는 45세 이하의 연령의 혼외성관계는 유의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양다진(2004)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결혼지속년수가 오래 될수록, 결혼형태가 연애혼인 경우 혼외관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외관계에 관한 인식에서 성별, 연령, 종교가 혼외성관계의 인식에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심영희 1991),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성관계에 더 허용적이었고, 특히 여성의 혼외성관계에는 더욱더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는 없는 경우 더 허용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Singh 등(1976)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성관계에 관해 더 허용적이었고, 연령과 종교적인 참여활동이 낮을수록 혼외성관계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Reiss 등(1980)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연령, 종교적인 참여활동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 2)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의 실태

혼외관계의 인식은 혼외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Greeley(1994)에 의하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혼외관계 비율은 10%에 불과했지만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혼외관계 비율은 70%로 높게 나타났다.

천주현(1992)에 의하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혼외 관계의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reas와 Giesen(2000)도 혼외관계에 관한 허용적인 태도가 무엇보다도 혼외관계를 경험할 경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Liu(2000)의 연구에서도 혼외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가 좀 더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외관계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혼외관계에 대한 태도가 좀 더 허용적인 경향이 있는지, 이런 혼외관계의 허용적인 태도가 혼외관계의 경험을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외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개입되어 있는나 의 문제는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춘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성관계, 혹은 출장, 여행지등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통한 일회성 성관계 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살림을 차렸다'라는 의미의 동거상태 혹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성관계에는 사랑의 개입으로 보아 부부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근후, 동아일보 1985. 3. 13; 천주현 1993 재인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혼외관계 경험에 관한 최초의 조사로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 사이에 화제를 불러 일으킨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표본 대상 6427명, 여성과 이혼한 여성 및 과부가 된 여성등의 표본 대상자 69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51%와 여성의 26%가 40세 이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혼외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윤가현 1999).

Cann 등(2001)은 혼외관계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서적인 외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남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성적인 외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태영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20-73%, 여성의 3-15%정도가 혼외관계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 3. 7). 또 다른 한국성과학연구소(2003)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거주 기혼남성 2천명을 대상으로 혼외관계 경험을 알아보았는데, 응답자의 78%가 혼외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다진(2004)의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혼외관계 경험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과거 혼외성관계의 경우 남성은 46.2%, 여성은 26%로 나타났고, 현재 혼외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도 남성은 12.3%, 여성은 14.3%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혼외관계 경험이 없는 사람은 83%가 앞으로도 혼외관계의 경험을 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고 했고, 5%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 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44%가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계속 의도가 있는 사람도 56%나 되어 과거의 혼외관계의 경험이 앞으로의 혼외관계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심영희 1991).

### III.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표집과 응답에 있어서 내용상의 비밀유지와 사적인 경험질문이 많은 관계로 철저한 비밀유지가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적, 연령적 표집이 용이한 on-line 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2007년 1월 8일~1월 17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설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을 동의한 기혼 남녀에게 e-mail을 발송하여, 연령과 거주 지역을 고려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켜 남·녀 각 300명씩 600명의 자료를 수거하여 연구에 사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인터넷 표집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혼외관계'라는 내용이 사적인 응답에 해당하고 우리문화의 정서상 부적절한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용이한 인터넷을 통했을 때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인 표집과 연령대 및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자료에 의한 선별 표집이 가능하고, 응답에 대한 회수가 쉽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는 사이버상의 의도적인 표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남·녀 각각 300명씩,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분포를 형성하도록 표집되었다. 학력은 남성들은 대졸이 200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성들은 주로 고졸이하가 148명(49.3%), 대졸이 142명(47.3%)이다. 남성들의 직업은 사무직 및 회사원이 93명(31.0%), 전문직 및 관리직이 87명(29%)이고 여성은 주부가 176명(5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무직 및 회사원이 50명(16.7%)으로 되어있다.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인 남·녀 모두 가장 많았고, 21년 이상되는 경우도 남성 73명(24.3%), 여성 86명(28.7%)이었다.

결혼상황은 대부분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초혼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가구당 소득수준은 151-45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남성은 137명(45.7%), 여성은 123명(41.0%)이었고, 그 다음이 기독교로 각각 72(24.0%)명, 79(26.3%)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류	N(%)		변인	분류	N(%)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성별	남성/여성	300(100)	300(100)	결혼 기간	1-5년	119(39.7)	105(35.0)
					6-10년	41(13.7)	40(13.3)
					11-15년	30(10.0)	26(8.7)
					16-20년	37(12.3)	43(14.3)
					21년이상	73(24.3)	86(28.7)
연령	20대	75(25.0)	76(25.3)	결혼 상황	모두초혼	293(97.7)	286(95.3)
	30대	79(26.3)	74(24.7)		배우자재혼	3(1.0)	3(1.0)
	40대	72(24.0)	76(25.3)		나만재혼	2(0.7)	4(1.3)
	50대	74(24.7)	74(24.7)		모두재혼	2(0.7)	7(2.3)
교육 수준	고졸이하	66(22.0)	148(49.3)	종교	없다	137(45.7)	123(41.0)
	대졸	200(66.7)	142(47.3)		기독교	72(24.0)	79(26.3)
	대학원졸	34(11.3)	10(3.3)		천주교	30(10.0)	36(12.0)
					불교	59(19.7)	58(19.3)
			기타		2(0.7)	4(1.3)	
직업	전문직,관리직	87(29.0)	20(6.7)	월소득 (배우자 포함)	150만원 이하	23(7.7)	28( 9.3)
	사무직,회사원	93(31.0)	50(16.7)		151-300만원	109(36.3)	138(46.0)
	판매서비스직	68(22.7)	40(13.3)		301-450만원	80(26.7)	68(22.7)
	생산,운수직	36(12.0)	9(3.0)		451-600만원	69(23.0)	53(17.7)
	주부	0(0.0)	176(58.7)		601만원 이상	19( 6.3)	13( 4.3)
	기타	16(5.3)	5(1.7)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은 먼저 혼외관계의 선행연구들의 개념적 정의와 담론을 통한 질적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외관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의 하위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이 요소들을 토대로 문항들을 검토하여 문장과 내용을 수정하였고,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학 및 가족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 및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령, 성별, 소득, 학력, 종교, 결혼기간, 배우자와의 결혼상황(초혼, 재혼)등의 변인들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에서는 혼외관계의 경우 종교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종교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일상생활에서 역할 중요도와 종교 활동의 참여도를 묻는 질문이 첨가되어 있어서 주관적인 종교의 역할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종교의 역할 중요도는 '일상생활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종교 활동 참여도는 종교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에 대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고 있다.

### 2) 혼외관계의 인식

혼외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고찰과 질적 연구 대상자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7가지 유형에 대한 혼외관계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7가지 유형은 ① '정서적 친밀감 교류 유형'으로 이 경우의 혼외관계는 '이성과 신체적, 정서적, 성적 접촉 없이 정서적으로 몰입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다음으로 성관계를 갖는 유형으로 그 대상과 몰입의 정도에 따라 ② '매매춘을 통해 이성과 일회성 성관계를 갖는 것', ③ '매매춘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 ④ '매매춘을 제외한 우연한 이성과의 일회성 성관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성교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친밀행위에서 좀 더 진한 육체적 접촉의 행위로서 ⑤ '포옹, 키스, 애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간접적이면서 신분노출이 거의 없고, 본인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 혼외관계의 유형으로서 ⑥ '문자채팅을 통해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⑦ '사이버상의 이성과 화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등과 같은 혼외관계에 관해 각각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혼외관계 아니라는 0점,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가를 '가벼운', '심한', '매우 심한' 혼외관계로 구분하여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7문항으로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 3) 혼외관계의 경험

혼외관계의 경험은 정서적 친밀감 유형인 ①정서적 몰입의 혼외관계와 직접적인 성 접촉 유형인 ②성교를 통한 혼외관계 ③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을 통한 혼외관계, 사이버를 통한 간접적인 혼외관계 유형인 ④화상채팅 ⑤문자채팅이 있다.

이상의 질문에 경험유무와 더불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 및 상황에 관한 횡수를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혼외관계의 경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⑥혼외관계의 구상 ⑦혼외관계의 시도의 유무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총 7문항으로 혼외관계의 경험을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식과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식의 경우 각 문항당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과 경험의 차이분석을 위해 교차분석( $\chi^2$ )과,  $t$ -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혼외관계 인식의 일반적 경향

혼외관계유형에 대해 남·녀 대부분이 모두 혼외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좀 더 허용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적인 접촉이 없는 정서적 친밀관계', '사이버 문자채팅', '사이버 화상채팅'에 대해 기혼남녀 대부분이 '혼외관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기의 결합이 없는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매춘을 통한 일회성 성관계'에 관해 '혼외관계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남성들은 87명(2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심한 혼외관계로 119명(39.7%)이 인식하고 있어, 남성들은 매매춘 혼외관계에 허용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매춘을 제외한 우연한 만남을 통한 일회성 성관계'의 경우 남성들의 100명(33.3%)이 '가벼운 혼외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매우 심한 혼외관계'라는 인식이 159명(53%)으로 나타났다.

포옹, 키스과 같은 육체적 접촉에 대해 남성들은 136명(45.3%)이 '가벼운 혼외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성들은 '매우 심한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96명(32%)으로 여성들은 육체적 접촉이 애정 행위로서 받아들여 '매우 심한 혼외관계'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은 성교행위 이외의 행위에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혼외관계 인식의 차

먼저 혼외관계 맺는 대상과 그 상황별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인식의 차이분석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관해 허용도가 높았고, 남성들이 정서적인 혼외관계나 사이버 문자채팅을 혼외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가벼운 혼외관계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Glass와 Wright(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남성들이 혼외관계의 인식에 여성들보다 성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이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 정서적인 몰입, 육체적 애무나 키스 또한 혼외관계로 포함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하룻밤의 정사, 매매춘을 통한 성관계등과 같은 비교적 애정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성 성관계에 관해 남성들은 가벼운 혼외관계로서 인식하지만, 여성들은 매우 심한 혼외관계로 보고 있어 분명한 인식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남·여간의 인식의 차이는 남성들은 비교적 가벼운,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경우로 생각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심각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정 내 부부간 갈등을 야기시킨다.

<표 2> 혼외관계 유형에 대한 인식

N(%)

문 항	성별	혼외관계 아님	가벼운 혼외관계	심한 혼외관계	매우 심한 혼외관계
신체, 성적 접촉 없이 정서적 친밀관계	남	136 (45.3)	107 (35.7)	31 (10.3)	26 ( 8.7)
	여	73 (24.3)	121 (40.3)	61 (20.3)	45 (15.0)
매매춘을 통한 일회성 성관계	남	87 (29.0)	99 (33.0)	74 (24.7)	40 (13.3)
	여	26 ( 8.7)	57 (19.0)	98 (32.7)	119 (39.7)
매매춘을 제외한 지속적 성관계	남	20 ( 6.7)	54 (18.0)	119 (39.7)	107 (35.7)
	여	9 ( 3.0)	17 ( 5.7)	83 (27.7)	191 (63.7)
매매춘 제외한 우연한 이성과의 일회성 성관계	남	27 ( 9.0)	100 (33.3)	92 (30.7)	81 (27.0)
	여	8 ( 2.7)	34 (11.3)	99 (33.0)	159 (53.0)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 애무	남	47 (15.7)	136 (45.3)	77 (25.7)	40 (13.3)
	여	13 ( 4.3)	62 (20.7)	96 (32.0)	96 (32.0)
사이버 성적인 문자채팅	남	122 (40.7)	113 (37.7)	47 (15.7)	18 ( 6.0)
	여	46 (15.3)	116 (38.7)	95 (31.7)	43 (14.3)
사이버 성적인 화상채팅	남	107 (35.7)	111 (37.0)	58 (19.3)	24 ( 8.0)
	여	35 (11.7)	97 (32.3)	54 (18.0)	54 (18.0)

〈표 3〉 성별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

혼외관계의 유형	성별	혼외관계인식여부 N(%)		$\chi^2$	혼외관계 인식정도 M(SD)	t
		혼외관계 아니다	혼외관계이다			
정서적 친밀관계	남	136 (45.3)	164 (54.7)	29.14***	.86 (.94)	-5.25***
	여	73 (24.3)	227 (75.7)			
일회성 성관계(매매춘 포함)	남	87 (29.0)	213 (71.0)	40.57***	1.29 (1.00)	-9.59***
	여	26 ( 8.7)	274 (91.3)			
지속적 성관계(매매춘 제외)	남	20 ( 6.7)	280 (93.3)	4.38*	2.15 ( .78)	-6.62***
	여	9 ( 3.0)	291 (97.0)			
일회성 성관계(매매춘 제외)	남	27 ( 9.0)	273 (91.0)	10.95***	1.85 ( .89)	-8.04***
	여	8 ( 2.7)	292 (97.3)			
육체적 접촉	남	47 (15.7)	253 (84.3)	21.41***	1.44 ( .87)	-8.83***
	여	13 ( 4.3)	287 (95.7)			
사이버 성적 문자채팅	남	122 (40.7)	178 (59.3)	47.75***	.92 ( .89)	-7.43***
	여	46 (15.3)	254 (84.7)			
사이버 성적 화상채팅	남	107 (35.7)	193 (64.3)	47.83***	1.05 ( .93)	-7.86***
	여	35 (11.7)	265 (88.3)			

\*p<.05, \*\* p<.01, \*\*\* p<.001

남성의 경우 남성이 일회성 성관계와 같은 혼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애정이 개입되지 않은 육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한편으로 남성들 자신의 혼외관계에 관해 여성과는 다른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갖고 이것은 이중적 허용태도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은 남성의 경우, 포옹, 키스

와 같은 육체적 접촉과 같은 혼외관계 유형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좀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유무

M(SD)

구 분	정서적친밀	일회성성관계 (매매춘포함)	지속적성관계 (매매춘제외)	일회성성관계 (매매춘제외)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남성	20대	1.07(1.00)	1.44(1.04)	2.12(.99)	1.85(1.04)	1.67(1.02) <sup>a</sup>	1.05( .93)
	30대	.81( .99)	1.19( .98)	1.91(.96)	1.75( .93)	1.20( .81) <sup>b</sup>	.68( .73)
	40대	.67( .77)	1.13(1.05)	2.10(.82)	1.71( .94)	1.38( .86) <sup>b</sup>	.85( .89)
	50대	.74( .92)	1.14( .97)	2.05(.79)	1.72( .91)	1.23( .85) <sup>b</sup>	.92( .98)
	F값	2.59	1.60	.84	.36	4.34**	2.52
여성	20대	1.47( .99)	2.28( .86) a	2.59( .68)	2.53( .70)	2.22( .76) <sup>a</sup>	1.68( .90) <sup>a</sup>
	30대	1.19( .95)	1.92( .98) b	2.62( .61)	2.31( .72)	2.03( .81) <sup>ab</sup>	1.41( .94) <sup>ab</sup>
	40대	1.13( .98)	1.86(1.05) b	2.34( .79)	2.22( .87)	1.84( .88) <sup>b</sup>	1.28( .89) <sup>b</sup>
	50대	1.24(1.03)	2.08( .93) ab	2.53( .83)	2.39( .82)	2.01( .87) <sup>ab</sup>	1.43( .92) <sup>ab</sup>
	F값	1.75	2.92*	2.21	2.05	2.68*	2.66*

\*p<.05, \*\* p<.01, \*\*\* p<.001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유형별로 연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매매춘을 포함하는 일회성 성관계,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사이버상의 문자채팅과 같은 혼외관계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매매춘 포함된 일회성 성관계의 경우 연령이 낮은 20대의 경우 '매우 심한 혼외관계'로서 보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다른 연령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혼외성관계만을 조사한 앞선 연구(심영희 1991; Reiss 등 1980)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과거 성의 결정에 대한 자율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의 인식이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그동안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과 사랑과 성을 동일하게 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과 사이버상의 문자채팅의 혼외관계 유형에 대해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직업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은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들은 전문, 관리직과 사무직 및 회사원들이 사이버상의

문자 채팅을 통한 혼외관계의 유형에서 혼외관계라고 보지 않거나 혹은 가벼운 혼외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사이버상의 문자채팅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판매직 및 서비스업의 여성들이 비교적 혼외관계에 관해 허용적인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체적 접촉의 유형에서 전문, 관리직이 비교적 심한 혼외관계(m=2.45)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사무직 및 회사원(m=2.04)과 주부(m=2.05)들이 비교적 혼외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종사 여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허용적인 것(m=1.75)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업의 여성들보다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종사 여성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의 기회가 많아 그들의 인식이 허용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에 따라 혼외관계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혼외관계의 유형에 따라 교육수준별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상의 문자채팅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좀 더 혼외관계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업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

M(SD)

구 분	정서적친밀	일회성성관계 (매매춘포함)	지속적성관계 (매매춘제외)	일회성성관계 (매매춘제외)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남성	전문,관리직	.74( .92)	1.23(1.01)	2.00( .82)	1.62(1.05)	1.32( .84)	.76( .82) <sup>a</sup>	1.01( .92)
	사무,회사	.92(1.05)	1.27(1.04)	2.11( .93)	1.74( .92)	1.37( .92)	.76( .83) <sup>a</sup>	.95( .90)
	판매,서비스	.78( .81)	1.15(1.05)	2.03( .96)	1.76( .91)	1.35( .97)	.96( .12) <sup>ab</sup>	.89( .91)
	생산,운수	.83( .81)	1.28( .94)	2.11( .82)	2.06( .83)	1.50( .94)	1.17( .94) <sup>ab</sup>	1.19(1.06)
	기타	.88(1.15)	1.13( .89)	1.81(1.05)	1.75(1.13)	1.38( .81)	1.25(1.00) <sup>b</sup>	1.38( .96)
	F값	.51	.21	.49	1.26	.25	2.50*	1.45
여성	전문,관리	1.20( .95)	2.35( .88)	2.90( .31)	2.70( .57)	2.45( .60) <sup>a</sup>	1.90( .91) <sup>a</sup>	1.95( .83)
	사무,회사	1.08(1.01)	1.82(1.00)	2.56( .81)	2.30( .76)	2.04( .90) <sup>ab</sup>	1.50( .89) <sup>ab</sup>	1.66( .92)
	판매,서비스	1.10(1.01)	1.85(1.05)	2.38( .74)	2.25( .90)	1.75( .87) <sup>b</sup>	1.15( .95) <sup>b</sup>	1.35(1.00)
	주부	1.34( .99)	2.09( .93)	2.51( .73)	2.38( .78)	2.05( .81) <sup>ab</sup>	1.47( .90) <sup>ab</sup>	1.64( .89)
	기타	1.50( .85)	2.14(1.10)	2.29( .83)	2.21( .89)	1.86( .95) <sup>b</sup>	1.29( .99) <sup>b</sup>	1.57( .94)
	F값	1.15	1.72	2.13	1.36	2.61*	2.48*	1.60

\*p<.05

〈표 6〉 교육수준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

M(SD)

구 분	정서적친밀	일회성성관계 (매매춘포함)	지속적성관계 (매매춘제외)	일회성성관계 (매매춘제외)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남성	고졸이하	.85 (.92)	1.26 (1.04)	2.14 (.93)	1.86 (1.08)	1.50 (1.01)	1.05 (1.01)	1.17 (1.05)
	대졸	.83 (.91)	1.19 (.98)	2.02 (.88)	1.70 (.90)	1.34 (.86)	.81 (.82)	.95 (.87)
	대학원졸	.74 (1.11)	1.35 (1.15)	2.00 (.95)	1.91 (1.00)	1.29 (.94)	.91 (1.00)	.94 (1.07)
	F값	.18	.42	.46	1.29	.95	1.87	1.41
여성	고졸이하	1.31 (.97)	2.04 (1.00)	2.46 (.80)	2.32 (.83)	1.94 (.85)	1.34 (.88) <sup>a</sup>	1.60 (.91)
	대졸	1.20 (1.02)	1.99 (.94)	2.57 (.65)	2.39 (.73)	2.09 (.81)	1.53 (.93) <sup>ab</sup>	1.61 (.91)
	대학원졸	1.40 (.84)	2.60 (.70)	2.70 (.95)	2.70 (.95)	2.40 (.97)	2.00 (1.05) <sup>b</sup>	2.10 (.99)
	F값	.58	1.90	1.13	1.23	2.25	3.47*	1.42

\*p<.05

결혼년수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은 남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육체적 접촉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집단과 11-15년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의 여성들은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혼외관계에 관해 혼외관계로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

고, 반면, 11-15년 이하의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혼외관계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낮았다.

한편, 결혼상황과 종교의 유무는 혼외관계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응답자의 결혼이 초혼 및 재혼상황인지, 종교가 있고 없고는 혼외관계의 유형별 인식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결혼년수에 따른 혼외관계의 인식

M(SD)

구 분	정서적친밀	일회성성관계 (매매춘포함)	지속적성관계 (매매춘제외)	일회성성관계 (매매춘제외)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남성	5년이하	.97(1.00)	1.39(1.03)	2.05(1.00)	1.79(1.01)	1.45(.95)	.92(.87)	1.00(.90)
	6-10년	.93(.98)	1.20(.90)	2.02(.85)	1.83(.90)	1.41(.87)	.78(.72)	.90(.74)
	11-15년	.57(.77)	.83(1.09)	2.03(.81)	1.67(.96)	1.20(.76)	.67(.80)	.80(.85)
	16-20년	.57(.77)	1.08(.92)	2.00(.82)	1.68(.91)	1.27(.90)	.86(1.00)	1.05(1.05)
	21년이상	.75(.89)	1.21(1.03)	2.07(.84)	1.74(.93)	1.32(.90)	.93(.98)	1.10(1.06)
	F값	2.30	2.12	.04	.23	.72	.66	.68
여성	5년이하	1.42(1.01)	2.12(.97)	2.61(.64)	2.50(.70)	2.21(.77) <sup>a</sup>	1.63(.90)	1.73(.87)
	6-10년	1.13(.97)	1.95(.93)	2.65(.58)	2.25(.78)	2.03(.73) <sup>ab</sup>	1.43(1.01)	1.58(.93)
	11-15년	.88(.82)	1.96(.96)	2.31(.88)	2.15(.78)	1.69(1.01) <sup>b</sup>	1.27(.97)	1.35(.94)
	16-20년	1.42(1.07)	1.98(1.03)	2.37(.85)	2.28(.88)	1.91(.89) <sup>ab</sup>	1.35(.90)	1.60(.90)
	21년이상	1.16(.96)	2.01(.96)	2.49(.79)	2.36(.84)	1.97(.85) <sup>ab</sup>	1.35(.88)	1.60(.95)
	F값	2.32	.38	1.72	1.54	2.68*	1.66	1.03

\*p<.05

<표 8> 남녀별 혼외관계의 경험빈도

N(%)

문항	유무 및 횟수, 대상		남자	여자
신체적, 성적인 접촉이 없는 정서적인 친밀감			없다 141(47.0)	224(74.7)
			있다 159(53.0)	76(25.3)
	횟수	1명	36(12.0)	42(14.0)
		2명	53(17.7)	20( 6.7)
		3명	28( 9.3)	8( 2.7)
		4명	36(12.0)	5( 1.7)
5-10명		6(2.0)	2( 0.3)	
대상	결혼전 애인이나 동창	55(18.3)	36(12.0)	
	같은 직장, 거래처사람	36(12.0)	16( 5.3)	
	결혼후 알게된사람	98(32.7)	31(10.3)	
	기타	11( 3.7)	2( 0.7)	
성 교 행 위			없다 138(46.0)	248(82.7)
			있다 162(54.0)	52(17.3)
	횟수	1명	27( 9.0)	36(12.0)
		2명	34(11.3)	6( 2.0)
		3명	32(10.7)	6( 2.0)
		4명	58(19.3)	4( 1.3)
5-10명		11( 3.7)	0( 0.0)	
대상	결혼전 애인이나 동창	41(13.7)	28( 9.3)	
	같은 직장, 거래처사람	25( 8.3)	9( 3.0)	
	결혼 후 알게 된 사람	80(26.7)	19( 6.3)	
	매춘, 유흥업소 종사자 기타	91(30.3) 1( 0.3)	0( 0.0) 1( 0.3)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없다 152(50.7)	229(76.3)
			있다 148(49.3)	71(23.7)
	횟수	1명	34(11.3)	40(13.3)
		2명	44(14.7)	22( 7.3)
		3명	22( 7.3)	5( 1.7)
		4명	39(13.0)	4( 1.3)
5-10명		9( 3.0)	0( 0.0)	
대상	결혼 전 애인이나 동창	46(15.3)	35(11.7)	
	같은 직장, 거래처 사람	41(13.7)	12( 4.0)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기타	86(28.7) 15( 5.0)	26( 8.7) 3( 1.0)	
사이버 성적 문자채팅			없다 210(70.0)	265(88.3)
			있다 90 ( 30)	35(11.7)
	시간	주 1시간미만	70(23.3)	28( 9.3)
주 1시간이상		20( 6.7)	7( 2.3)	
사이버 성적 화상채팅			없다 263(87.7)	289(96.3)
			있다 37(12.3)	11( 3.7)
	시간	주 1시간미만	23( 7.7)	8( 2.7)
주 1시간이상		14( 4.7)	3( 1.0)	
이성과의 교제구상			없다 158(52.7)	223(74.3)
			있다 142(47.3)	77(25.7)
이성과의 교제시도			없다 185(61.7)	256(85.3)
			있다 115(38.3)	44(14.7)

### 3. 혼외관계 경험의 일반적 경향

혼외관계의 유형별 남녀의 경험빈도는 <표 6>과 같다. 혼외관계의 경험비율은 모든 유형의 혼외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외 성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Wiederman(1997)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율이 실제로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하고, 실제 40세 이하의 남성과 여성의 외도의 빈도와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관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묵인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혼외관계의 성관계 경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관계 경험은 물론 기타 다른 유형의 혼외관계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혼외관계가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몰입이상의 친밀감의 경험도 남성 53%, 여성 25.3%였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성관계도 남성의 경우 162명으로 54.0%나 되었고, 여성은 52명으로 17.3%였다. 남성들의 경우 현재까지의 그 상대의 여성의 수가

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50명 정도 된다는 남성도 2명이나 되었다. 물론 50명의 여성을 상대한 남성의 경우 매매춘을 통해 관계를 갖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대상을 다양하게 하기보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수가 적어,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이 1명의 남성과 경험한 경우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상의 성적인 분위기가 농후한 문자채팅도 남성의 경우 90명(30%), 여성 35명(11.7%), 화상채팅도 남성37명(12.3%), 여성11명(3.7%)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생각해 본 교제구상의 경우도 남성의 경우 142명으로 47.3%나 되었고, 직접 교제를 위해 시도해 본 경우도 38.3%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외관계에 대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직접 시도해 보는 것으로 판단되어 혼외관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혼외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 위험성과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9> 성별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

N(%)

혼외관계유형	성별	혼외관계 경험여부		$\chi^2$
		경험 없다	경험 있다	
정서적 몰입의 친밀감	남	141 (47.0)	159 (53.0)	48.19***
	여	224 (74.7)	76 (25.3)	
성관계	남	138 (46.0)	162 (54.0)	87.89***
	여	248 (82.7)	52 (17.7)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인 접촉	남	152 (50.7)	148 (49.3)	42.64***
	여	229 (76.3)	71 (23.7)	
사이버 문자채팅	남	210 (70.0)	90 (30.0)	30.57***
	여	265 (88.3)	35 (11.7)	
사이버 화상채팅	남	263 (87.7)	37 (12.3)	15.31***
	여	289 (96.3)	11 ( 3.7)	
이성과의 교제구상	남	158 (52.7)	142 (47.3)	30.38***
	여	223 (74.3)	77 (25.7)	
이성과의 교제시도	남	185 (61.7)	115 (38.3)	43.14***
	여	256 (85.3)	44 (14.7)	

\*p<.05, \*\* p<.01, \*\*\* p<.001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의 차

혼외관계의 경험을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세분화해서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혼외관계에서 성별 경험의 빈도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형은 '성관계'와 '정서적 몰입의 친밀감' 유형이었다. 남성들은 가장 많은 경험 유형이 성관계였고, 그 다음이 정서적 몰입의 친밀감 유형,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교제구상', '정서적 몰입의 친밀감',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순으로 나타났는데, Glass와 Wright (1992)의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로, 남성들은 성적인 교류를 통한 혼외관계를 주로 경험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정서적인 교류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계의 경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심영희(1991)는 우리사회가 엄격하게 여성의 성관계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한편으로 실제로 남성의 성관계는 다수가 한번이상 경험하는 현상인데 반해, 여성은 극소수의 여성만이 다수의 남성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적은

수의 여성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령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정서적 몰입'의 혼외관계 유형과 '성교행위', '화상채팅', '교제구상', '교제시도'에서, 여성의 경우 '화상채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정서적 몰입', '성교행위'에서는 40대와 50대가 주로 경험하고 있었고, '화상채팅'의 경우 인터넷을 자주 접하고 있는 젊은 20대가 경험하는 유형이었다.

혼외관계에 대해 생각하거나, 직접 행동으로 시도해본 경우도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에 혼외관계의 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을 양유성(2006)은 중년의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로 배우자를 통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공허감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외관계를 경험하기 쉬운 시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르게 '화상채팅'의 혼외관계 유형에서만 연령별로 경험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성과 같이 20대의 연령에서 화상채팅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10> 연령에 의한 혼외관계의 경험

N(%)

구 분	정서적몰입		성관계		육체적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교제구상		교제시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남성	20대	30 (10.0)	45 (15.0)	28 (9.3)	47 (15.7)	33 (11.0)	42 (14.0)	21 (7.0)	54 (18.0)	16 (5.3)	59 (19.7)	23 (7.7)	52 (17.3)	19 (6.3)	56 (18.7)
	30대	36 (12.0)	43 (14.3)	41 (13.7)	38 (12.7)	37 (12.3)	42 (14.0)	26 (8.7)	53 (17.7)	8 (2.7)	71 (23.7)	34 (11.3)	45 (15.0)	20 (6.7)	59 (19.7)
	40대	46 (15.3)	26 (8.7)	44 (14.7)	28 (9.3)	35 (11.7)	37 (12.3)	24 (8.0)	48 (16.0)	8 (2.7)	64 (21.3)	43 (14.3)	29 (9.7)	36 (12.0)	36 (12.0)
	50대	47 (15.7)	27 (9.0)	49 (16.3)	25 (8.3)	43 (14.3)	31 (10.3)	19 (6.3)	55 (18.3)	5 (1.7)	69 (23.0)	42 (14.0)	32 (10.7)	40 (13.3)	34 (11.3)
	$\chi^2$	13.6**		14.44**		3.35		1.50		8.20*		16.01**		22.91***	
여성	20대	20 (6.7)	56 (18.7)	17 (5.7)	59 (19.7)	22 (7.3)	54 (18.0)	12 (4.0)	64 (21.3)	7 (2.3)	69 (23.0)	19 (6.3)	57 (19.0)	9 (3.0)	67 (22.3)
	30대	18 (6.0)	56 (18.7)	13 (4.3)	61 (20.3)	22 (7.3)	52 (17.3)	8 (2.7)	66 (22.0)	2 (0.7)	72 (24.0)	21 (7.0)	53 (17.7)	10 (3.3)	64 (21.3)
	40대	22 (7.3)	54 (18.0)	13 (4.3)	63 (21.0)	17 (5.7)	59 (19.7)	11 (3.7)	65 (21.7)	1 (0.3)	75 (25.0)	21 (7.0)	55 (18.3)	13 (4.3)	63 (21.0)
	50대	16 (5.3)	58 (19.3)	9 (3.0)	65 (21.7)	10 (3.3)	64 (21.3)	4 (1.3)	70 (23.3)	1 (0.3)	73 (24.3)	16 (5.3)	58 (19.3)	12 (4.0)	62 (20.7)
	$\chi^2$	1.14		2.73		6.97		4.70		9.12*		1.09		1.07	

\*p<.05, \*\* p<.01, \*\*\* p<.001

〈표 11〉 소득에 의한 혼외관계의 경험

N(%)

구 분	정서적몰입		성관계		육체적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교제구상		교제시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남성	150 미만	12 (4.0)	11 (3.7)	4 (1.3)	19 (6.3)	7 (2.3)	16 (5.3)	6 (2.0)	17 (5.7)	3 (1.0)	20 (6.7)	8 (2.7)	15 (5.0)	8 (2.7)	15 (5.0)
	151-300	55 (18.3)	54 (18.0)	61 (20.3)	48 (16.0)	51 (17.0)	58 (19.3)	35 (11.7)	74 (24.7)	10 (3.3)	99 (33.0)	55 (18.3)	54 (18.0)	38 (12.7)	71 (23.7)
	301-450	41 (13.7)	39 (13.0)	44 (14.7)	36 (12.0)	43 (14.3)	37 (12.3)	23 (7.7)	57 (19.0)	14 (4.7)	66 (22.0)	32 (10.7)	48 (16.0)	30 (10.0)	50 (16.7)
	451-600	40 (13.3)	29 (9.7)	44 (14.7)	25 (8.3)	35 (11.7)	34 (11.3)	20 (6.7)	49 (16.3)	9 (3.0)	60 (20.0)	36 (12.0)	33 (11.0)	32 (10.7)	37 (12.3)
	601 이상	11 (3.7)	8 (2.7)	9 (3.0)	10 (3.3)	12 (4.0)	7 (2.3)	6 (2.0)	13 (4.3)	1 (0.3)	18 (6.0)	11 (3.7)	8 (2.7)	7 (2.3)	12 (4.0)
	$\chi^2$	1.25		15.60**		5.70		.52		3.90		5.11		2.61	
여성	150 미만	12 (4.0)	16 (5.3)	8 (2.7)	20 (6.7)	8 (2.7)	20 (6.7)	3 (1.0)	25 (8.3)	1 (0.3)	27 (9.0)	8 (2.7)	20 (6.7)	9 (3.0)	19 (6.3)
	151-300	26 (8.7)	112 (37.3)	20 (6.7)	118 (39.3)	29 (9.7)	109 (36.3)	20 (6.7)	118 (39.3)	8 (2.7)	130 (43.3)	32 (10.7)	106 (35.3)	10 (3.3)	128 (42.7)
	301-450	17 (5.7)	51 (17.0)	9 (3.0)	59 (19.7)	14 (4.7)	54 (18.0)	5 (1.7)	63 (21.0)	0 (0)	68 (22.7)	17 (5.7)	51 (17.0)	8 (2.7)	60 (20.0)
	451-600	19 (6.3)	34 (11.3)	14 (4.7)	39 (13.0)	18 (6.0)	35 (11.7)	6 (2.0)	47 (15.7)	2 (0.7)	51 (17.0)	18 (6.0)	35 (11.7)	15 (5.0)	38 (12.7)
	601 이상	2 (0.7)	11 (3.7)	1 (0.3)	12 (4.0)	2 (0.7)	11 (3.7)	1 (0.3)	12 (4.0)	0 (0)	13 (4.3)	2 (0.7)	11 (3.7)	2 (0.7)	11 (3.7)
	$\chi^2$	11.40*		7.94		4.87		2.53		4.86		3.22		21.24***	

\*p<.05, \*\* p<.01, \*\*\* p<.001

소득에 의한 혼외관계의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육체적 성교행위'에서 소득수준에 의한 경험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 '정서적 몰입'의 혼외관계 유형과 '교제 시도'의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당 소득이 151이상-300만원 미만에서 혼외관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 유형별 혼외관계의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 이성교제를 직접 행동으로 시도해 본 '교제시도'의 경험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보다 주부들의 유의한 차이(n=21, p<.05)가 있었다.

결혼년수에 따른 혼외관계 유형의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정서적 몰입의 혼외관계', '성교행위', '육체적 행위', '교제구상', '교제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육체적 접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결혼 5년 미만과 21년 이상의 집단이 가장

많은 혼외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초는 이혼율이 가장 높고(이용한 1983) 부부간의 적응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광자 1995; 이동원 1983)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혼외관계를 경험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결혼기간 21년 이상에서 혼외관계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혼 21년 이상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부부 둘만의 관계 향상이 이루어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 만족도와는 별개로 혼외관계를 경험하거나, 부부 관계가 오히려 원만하지 못해 자신이 또 다른 경험으로 외로움을 채우려는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육체적 접촉의 혼외관계 유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 미만의 집단이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결혼년수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

N(%)

구 분	정서적몰입		성관계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		화상채팅		교제구상		교제시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남성	1-5년	47 (15.7)	72 (24.0)	49 (16.3)	70 (23.3)	51 (17.0)	68 (22.7)	38 (12.7)	81 (27.0)	21 (7.0)	98 (32.7)	41 (13.7)	78 (26.0)	26 (8.7)	93 (31.0)
	6-10년	17 (5.7)	24 (8.0)	19 (6.3)	22 (7.3)	14 (4.7)	27 (9.0)	10 (3.3)	31 (10.3)	2 (0.7)	39 (13.0)	15 (5.0)	26 (8.7)	11 (3.7)	30 (10.0)
	11-15년	22 (7.3)	8 (2.7)	21 (7.0)	9 (3.0)	20 (6.7)	10 (3.3)	14 (4.7)	16 (5.3)	4 (1.3)	26 (8.7)	20 (6.7)	10 (3.3)	18 (6.0)	12 (4.0)
	16-20년	27 (9.0)	10 (3.3)	25 (8.3)	12 (4.0)	20 (6.7)	17 (5.7)	10 (3.3)	27 (9.0)	6 (2.0)	31 (10.3)	23 (7.7)	14 (4.7)	22 (7.3)	15 (5.0)
	21년 이상	46 (15.3)	27 (9.0)	48 (16.0)	25 (8.3)	43 (14.3)	30 (10.0)	18 (6.0)	55 (18.3)	4 (1.3)	69 (23.0)	43 (14.3)	30 (10.0)	38 (12.7)	35 (11.7)
	$\chi^2$	24.75***		18.74**		12.39*		5.94		8.93		21.50***		34.73***	
여성	1-5년	23 (7.7)	82 (27.3)	22 (7.3)	83 (27.7)	25 (8.3)	80 (26.7)	13 (4.3)	92 (30.7)	7 (2.3)	98 (32.7)	26 (8.7)	79 (26.3)	13 (4.3)	92 (30.7)
	6-10년	12 (4.0)	28 (9.3)	6 (2.0)	34 (11.3)	16 (5.3)	24 (8.0)	5 (1.7)	35 (11.7)	1 (0.3)	39 (13.0)	11 (3.7)	29 (9.7)	5 (1.7)	35 (11.7)
	11-15년	7 (2.3)	19 (6.3)	4 (1.3)	22 (7.3)	6 (2.0)	20 (6.7)	6 (2.0)	20 (6.7)	1 (0.3)	25 (8.3)	7 (2.3)	19 (6.3)	3 (1.0)	23 (7.7)
	16-20년	12 (4.0)	31 (10.3)	8 (2.7)	35 (11.7)	12 (4.0)	31 (10.3)	6 (2.0)	37 (12.3)	1 (0.3)	42 (14.0)	13 (4.3)	30 (10.0)	9 (3.0)	34 (11.3)
	21년 이상	22 (7.3)	64 (21.3)	12 (4.0)	74 (24.7)	12 (4.0)	74 (24.7)	5 (1.7)	81 (27.0)	1 (0.3)	85 (28.3)	20 (6.7)	66 (22.0)	14 (4.7)	72 (24.0)
	$\chi^2$	1.30		1.92		10.83*		6.44		4.58		.87		2.32	

\*p<.05, \*\* p<.01, \*\*\* p<.001

<표 13> 종교활동의 참여도에 따른 혼외관계의 경험

M(SD)

변인	혼외관계유형	성별	경험 여부		t값
			경험있다	경험없다	
종교의 참여 정도	정서적 몰입의 친밀감	남	1.87 ( .81)	2.03 ( .91)	-1.16
		여	2.02 ( .94)	2.27 ( .92)	-1.60
	성관계	남	1.72 ( .71)	2.20 ( .93)	-3.76***
		여	1.94 ( .81)	2.26 ( .95)	-1.98
비교 대상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인 접촉	남	1.74 ( .76)	2.15 ( .89)	-3.19**
		여	1.92 ( .85)	2.27 ( .94)	-2.21*
	사이버 문자채팅	남	1.86 ( .87)	1.97 ( .84)	-.77
		여	1.76 ( .77)	2.26 ( .94)	-2.32*
사이버 화상채팅	남	1.58 ( .50)	2.01 ( .89)	-2.40*	
	여	1.86 (1.07)	2.21 ( .92)	-.99	
이성과의 교제구상	남	1.84 ( .81)	2.02 ( .88)	-1.34	
	여	2.06 ( .99)	2.25 ( .91)	-1.15	
이성과의 교제시도	남	1.77 ( .73)	2.05 ( .91)	-2.11*	
	여	1.92 (1.00)	2.24 ( .91)	-1.62	

\*p<.05, \*\* p<.01, \*\*\* p<.001

종교의 유무는 남성들의 경우 '화상채팅'의 혼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 $p < .05$ )를 보이고 있었고, 여성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의 중요도와 참여도가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남성은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사이버 화상채팅'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에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대해 남성은 '성관계',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화상채팅', '교제시도'에서 혼외관계의 경험여부에 따라 참여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문자채팅'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관계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외관계에 관한 개념 정의를 체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혼외관계에 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대상의 표집은 인터넷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에게 인터넷 메일을 발송하여 본 연구에 관한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답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표집되었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남·녀 각 300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는데, 그 연구결과에 관해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외관계의 유형으로 '정서적 몰입의 친밀관계', '매매춘을 포함한 일회성 성관계', '매매춘을 제외한 지속적 성관계', '매매춘 제외한 일회성 성관계',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사이버상의 문자채팅', '화상채팅' 등에 관한 7가지 유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혼외관계에 관한 유형별 인식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모든 유형들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매매춘을 포함한 성관계에 관해서 '혼외관계가 아니다'로 보는 남성들이 29%나 되었으나, 여성들은 심한 혼외관계로 보는 경향이 39.7%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남성들의 향락문화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나 큰 죄의식 없이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은 '혼외관계'라고 인식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성교행위로 한정 되었지만, 여성들의 경우,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 '정서적 몰입의 친밀관계' 또한 혼외관계로 보고 있어 남성은 혼외관계에 육체적 성행위에 의미를 두지만, 여성에게 혼외관계는 사랑의 관계와 정서적 교류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를 육체적 성행위 혹은 매매춘을 제외한 성행위로 개념화 할 경우 이것은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혼외관계에 관한 광의의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혼외관계의 유형별 인식의 차이로, 아내는 혼외관계로 보아 심리적 상실감과 배신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혼외관계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부부불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혼외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교육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현장에서 그리고, 예비부부를 위한 부부교육에서 건전한 가치관 교육과 유형별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혼외관계의 경험 유무에 있어서 남성은 연령, 소득, 결혼년수, 종교유무, 종교생활의 중요도와 참여도 등이 유의한 변수였고, 여성은 연령, 결혼년수, 소득, 직업, 결혼 유형, 종교생활의 중요도와 참여도등이 유의한 변수로서 대부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관련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혼외관계의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여성의 혼외관계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빈도가 적은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성의 혼외관계의 경험이 주로 '정서적인 몰입의 혼외관계'와 '혼외관계의 구상' 그리고 '포옹, 키스와 같은 육체적 접촉'을 경험하고 있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교류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연속적인 측면의 혼외관계이다. 또 이성과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혼외구상'의 경험이 많은 것에 대해 여성의 혼외관계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파괴까지 야기시키는 혼외관계에 관해 낭만적 사랑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와 사회적 분위기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VI. 참고 문헌

1. 김예숙(1995).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서울
2. 남은주(1998).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가부장적 가치관과 경험분석을 중심으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변주혜(2002). 부부의 성(性) 연구 - 외도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심영희(1991).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303-355
5. 양다진(2004).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양유성(2006). 남성의 위기-21세기 한국남성과 가족치료. 제 22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55-67
7.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2000). 혼외관계의 이해. 신정. 서울
8. 이영화(2006). 기혼남녀의 혼외관계경험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전영주(2001). 상담사례를 통한 혼외관계의 특성분석-부산시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9(1): 81-98
10. 전요섭(2002). 중년기 외도의 심리분석과 목회상담적 지원. 한국개혁신학논문집 12: 339-367
11. 천주현(1992).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Allen, E.S., Baucom, D.H.(2004). Adult Attachment and Patterns of Extradyadic Involvement. *Family process* 43(4): 467-488
13. Atkins, D.C., Baucom, D.H., Jacobson, N.S.(2001). Understanding infidelity: Correlates in a national random samp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735-749
14. Blow, Adrian J.(2005). Infidelity in Committed Relationships II; A Substantive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Glass, S. P., Wright, T.L.(1985). Sex differences in type of extramarital involvement and marital dissatisfaction. *Sex Roles* 12: 1101-1120
16. Glass, S.P., Wright, T.L.(1992). Justification for extramarital relations: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Journal of Sex Research* 29: 361-387
17. Greeley, A.M.(1994). Marital infidelity. *Society* 31(4): 9-14
18. Liu, C.(2000). A theory of marital Sexual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63-374
19. Pitterman, F.S.(1989). *Private lies: Infidelity and the betrayal of intimacy*. Norton, New York
20. Reiss, I.L., Anderson, R.E., Sponaugle, G.G.(1980). A Multivariate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Extra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643-657
21. Richard, Elizabeth, B.(1989). Addicted to Adultery: *How We Saved Our Marriage/ How you save yours*. p. 205, Bantam, New York
22. Singhh, B.K., Walton, B.L., Williams J.S.(1976). Extra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Conditions and Contingenc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701-711
23. Treas, J., Giesen, D.(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8-60
24. Wiederman, M.W.(1997).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4: 167-174
25. Young, M.E, Long L.L(1998). 부부상담과 치료. 이정연 譯(2003). 시그마프레스, 서울